

유가 130달러대 급락 우리경제 숨통 트일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선으로 내려 서면서 고유가에 허덕이는 우리경제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129.29달러로 마감해 최근 3일 동안 배럴당 15.89달러(11%) 급락했다. WTI의 3일간 하락폭은 원유 선물거래 이후 최대 규모였다.

또 우리나라 주도업 유종의 기준가격인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17일 배럴당 2.97달러 떨어진 131.08달러로 장을 마쳤다.

두바이유 현물시장은 사차에 따라 선물시장을 하루 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18일에도 급락세가 이어져 지난달 26일(128.41달러) 이후 처음으로 120달러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가가 추락한 것은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 적극 홍보해 달라”

박지사, BIE회원국들에 요청

정부 대표자격으로 스페인 사라고사박람회와 유럽을 방문 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8일 벨기에 브뤼셀 힐튼호텔에서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각 대표들에게 “개최까지 4년여 남은 기간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에 많은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지사는 또 국제적 환경문제를 강조하면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환경오염 등이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며 “여수엑스포는 이런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 들러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의 주역인 조일환 프랑스대사를 만나 200만 전남도민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마쓰우라 유네스코 총장 내광

마쓰우라 고이치로 <사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24일 ‘2008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23~28일)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다.



마쓰우라 총장은 21일 김강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네스코 문화 교류사업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24일 광주에서 열리는 어린이 공연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25일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장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마쓰우라 총장은 지난 1999년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정부 사업 추진

총 사업비 887억중 내년 70억 우선 지원키로

민자유치방침 철회

정부가 민간자본 유치 사업(BTL) 추진방침을 밝혀 난항이 예상됐던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사업이 당초 안 대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총사업비 887억원 가운데 7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BTL사업 전환방침 때문에 한차례 무산됐던 건축설계경쟁 현상공모에 국내 6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광주와 대구 국립과학관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을 진행중인 부산과 강원 역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BTL사업 추진의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시는 BTL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착공시기(2009년)가 2년 이상 지연되고, 과학관 본래 취지를 잃게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끈질기게 부처 관계자를 설득, 재정사업

채택을 이끌어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 광주과학관건립이 국가재정으로 추진됨으로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광주 과학관은 장기적으로 첨단과학단지의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향후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9만8천248㎡(2만9천720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7천193㎡(5천201평) 규모로 건립되며, 기초과학·어린이 체험관·지역산업관·천지인학관 등 시설이 들어선다. 개관시기는 2011년 9월.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해남 블랑코 비치해수욕장 개장

18일 해남 화원 관광단지 내에 동양 최대의 인공해수욕장인 ‘블랑코 비치 해수욕장’이 오픈해 피서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얗다’는 뜻의 ‘블랑코’ 비치는 화원면 주관리와 하봉리 일대 509만㎡에 조성됐으며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18일 해남 화원 관광단지 내에 동양 최대의 인공해수욕장인 ‘블랑코 비치 해수욕장’이 오픈해 피서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얗다’는 뜻의 ‘블랑코’ 비치는 화원면 주관리와 하봉리 일대 509만㎡에 조성됐으며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중앙 권한 지방이양 신속 추진

당정청 합의... “균형발전 차원 공기업 지방 이전 중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을 주도하는 발전체제 전환을 모색했다”며 “지방분권을 제고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 협의를 의해 지방간 주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기본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경제의 ‘규모의 경제화’를 이뤄 16개 시·도 중심으로 산술적으로 나눠주기만 했던 평균적 개념에서 탈피,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열린 국토공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지역의 숙원 및

선도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기본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경쟁력 제고보다는 지역간 ‘기밀 추구’에 주력했고,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지역 자율성이 약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기업의 지방이전 추진이 국

토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는 지방도, 지역발전 청사진도 없다”는 국민의 의구심과 지방의 불만이 많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20~21일 당정청합의를 거쳐 지방 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강산 호텔 CC-TV 분석 착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정부 합동조사단(단장 황부기)은 18일 이번 사건의 실제 규명에 활용될 금강산 관광지구 내 호텔 폐쇄회로(CC) TV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합동조사단이 금강산 비치호텔과 해금강 호텔에 설치돼 있던 CCTV를 비롯한 관련자료를 17일 입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넘겼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CTV 분석 결과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언제 발표될 지

모르지만 합조단 이름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해당 CCTV에 기록된 사건 당일(11일) 영상을 복원, 피살된 고(故) 박왕자씨와 이번 사건 증인들의 호텔 출발시각 등 사건 관련 정황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이를 통해 박씨의 호텔 출발 시각(11일 오전 4시18분)이 정확한지, 박씨 출발시각과 복측이 밝힌 박씨 동선 및 사망시각 간에 모순점이 없는지 등을 밝혀내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시 설

‘한계상황’ 내몰린 농·어업 대책은 없나

농·어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면세유와 비료, 사료 등 영농 자재 값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폭등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값이 폭락하는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농어민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최근 농어민들의 경영상태는 최악이다. 어업용 및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7월 말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비료 값은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 넘게 급등하고, 사료 값 역시 1년 전에 비해 33% 뛰었다. 여기에다 치솟는 기름값을 견디다 못해 연안 여객선과 농어촌 버스는 운행을 아예 포기하거나 감속운행을 하고 있어 농어민의 발걸마저 묶고 있다. ‘고유가 쓰나미’가 농어촌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 물가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 산비만 두 배 이상 오른다면 농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농민들

이 생명줄과 같은 농기계를 반납하고, 어민들은 생계수단인 출어를 포기하겠는가. 농축산물은 자고나면 값이 떨어져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마당에서 기름 값, 비료 값, 사료 값 폭등 등 생산비 폭탄이 덮쳤으니 희망이 절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농어업이 고사 직전의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위기상황이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폭등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됐다고는 하나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농어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료와 농약 및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제도 도입과 면세유 보조금 지원 확대 등 농어민의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말’뿐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 서둘러야

광주시내 자전거 전용도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에 실선 두 줄을 그어 놓는 것이 고작이다.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적 전략과제로 채택한 마당에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고유가시대를 맞아 경제적 이유로도 적극 권장되고 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절대 부족하다. 광주시내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전용도로는 광주전면 등 1~2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인도에 설치한 데다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차단돼 있어 전용도로라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뒤섞여 사고가 나기 쉽고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이나 노상 적치물도 주행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적 전략과제로 채택한 마당에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돼 전용도로를 차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과 도로 사정 등을 이유로 인도에 개설한 것은 편법을 넘어 전형적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교통 약자’인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주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차도를 줄여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배기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과소비 등 자동차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자전거 타기는 활성화해야 한다. 행정 당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둘러 개선하기 바란다.

‘日제품 불매 운동’ 온라인 중심 확산

전자·자동차 관련업계 긴장

일본 정부의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결정으로 반일 감정이 치솟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토론방 게시판과 카페, 블로그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아고라에서 ‘코리아올’ 아이디어 네 티즌은 ‘일제불매운동이 시급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독도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일본을 더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란 말머리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본 식품과 생활품 리스트를 좀 알려달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글이 여러건 올라와 있다. 이와 같은 불매 움직임은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도 뜨겁게 달구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서 스크랩과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일제 불매 리스트’에는 ‘일본우익교과서를 후원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유명 전자 회사들이 거론돼 있으며, 화장품, 담배, 식품, 자동차, 의류 브랜드들도 불매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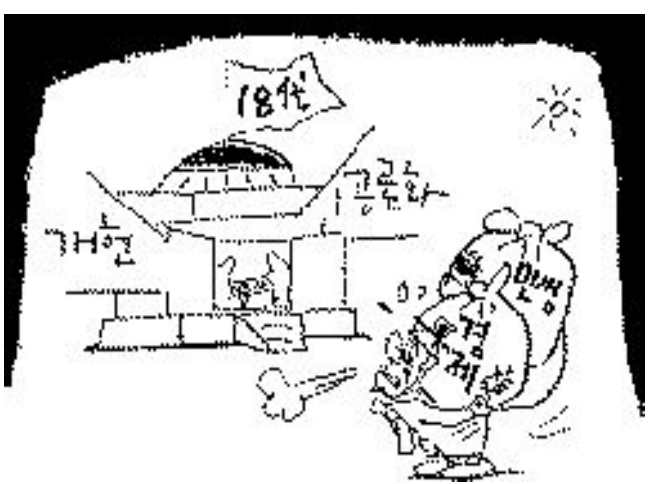
게다가 이와 같은 불매운동 움직임은 오프라인 상으로 이어져 지난 17일 부산경제대사거리시민연대는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수입차 불매운동과 추방 운동을 전개 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해당 업계에서는 당장 표면적으로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불매운동이 오프라인 상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면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진짜 시급한게 뭔지나 아는지 ... 윈 ...

“독도는 플랑크톤 생산력 높아 황금어장”

해양연구원 유신재 박사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울릉분지의 기초생물 생산력(식물플랑크톤의 생산량)이 동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황금어장이 형성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팀 유신재(53) 박사는 ‘동해에서 왜 남서부(울릉분지)가 생산력이 가장 높은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8일 논문에 따르면 울릉분지는 계절풍(남서풍)에 따른 율진과 감포 등 동해연안의 바닷물 용승(湧昇-수심 200~300m의 찬 바닷물이 해면으로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동해 다른 지역보다 기초생물 생산력이 20~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물 생산력은 어획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용승으로 심해의 찬 바닷물에 영양염(식물플랑크톤의 비료)이 섞여 해류를 타고 독도와 울릉도 지역의 울릉분지를 돌며 풍부한 어장이 형성된다는 것이 유 박사의 설명이다.

동해에는 주로 남서풍이 불어 일본 연안은 용승 현상이 적다고 유 박사는 밝혔다.

유 박사는 “동한 난류를 타고 영양염이 독도 쪽으로 이동해 독도 인근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며 “특히 위성자료 등의 분석 결과 동해 연안은 일본 연안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의 염록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논설실장 金東永 |
| 1952년 4월 20일 創社 |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
|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 경영지원국 2200-511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 집 부 2200-629 | 문화생활부 2200-626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 치 부 2200-616 | 여론제작부 2200-628 | 광고마케팅국 2200-521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사 회 1 부 2200-617 | 체 육 팀 2200-62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 회 1 부 2200-618 | 사 진 부 2200-690 | 다 자 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F A X 222-4267) | 조 사 부 2200-570 | (F A 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